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정경희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연구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재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최근 3년간 창업기업 297개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 확인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은 창업멘토링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업종과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매출 관계는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며, 제조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성장단계별 매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 성장단계는 창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 창업성과, 창업유형, 창업성장단계

1. 서론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고용창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이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창업촉진을 위하여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업을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창업촉진을 위한 부처 및 기능별 창업지원정책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플랫폼의 성장, ICT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타트업의 열기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이상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아닌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기술기반의 창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신동평 외, 2018).

현 정부는 경제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설정하고 창업 도전 환경조성과 투

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창업성과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년간 국내 창업기업은 100배 이상 증가하고 벤처캐피털 투자도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4위에 이르는 등 기술기반 창업 또한 꾸준한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기술기반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혁신형 창업 비중은 전체 0.5%에 불과한 실정이다(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lobal Report, 2017). 또한,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김경훈, 2017). 이와 같이 국내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에 반해 낮은 생존율은 창업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부의 투자 대비 창업기업의 낮은 성공률은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정경희·최대수, 2018).

이에 따라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신동평 외, 2018; 양현봉 외, 2018; 안승구, 2017). 하지만 대부분 질적 연구 중심이며, 실증연구 또한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거나 창업지원제도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에

* 주저자,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연구교수, heemiso@korea.ac.kr

· 투고일: 2020-01-10 · 수정일: 2020-02-12 · 게재확정일: 2020-02-19

집중되어 있다. 이 또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부 정책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의 한계가 있다(김창봉·이승현, 2017; 이희경, 2017).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른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정경희·최대수, 2018; 안승구, 2017).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1조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4%가 증가하였고(중소벤처기업부, 2019), 창업지원 예산의 약 78%가 예비창업자와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신동평 외, 2018). 이처럼 창업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그 정책적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와 업종에 따라 창업성과와 관련된 성공요인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설립 후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른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확인과 이에 따른 창업기업 특성별 맞춤형 정책 제언은 더욱 강조된다(안승구, 2017; Kazanjian & Drazin, 1990).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투입대비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지원과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초기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정책

최근 3년간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2017년 6,158억 원, 2018년 7,796억 원, 2019년 11,18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안승구, 2017). 이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지원정책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안승구, 2017).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경제 분야 5대 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하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지원유형별 창업 사업화(5,130.7억원, 45.9%), 연구개발(3,797억원, 33.9%), 시설·공간(1,493.8억원, 13.4%), 창업교육 및 멘토링(692.8억원, 6.2%), 행사·네트워킹(66.5, 0.6%)으로 구분하고, 창업단계별 예비, 설립(1년 이내), 창업초기(1-3년), 성장기(3-7년), 재도전 단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창업단계별 예산 투입 비중은 약 78%가 예비창업자와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업지원정책은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동평 외, 2018).

Gartner & Vesper(1994)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에게 자금지원과 교육, 훈련, 사후관리 등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소는 창업자의 역량 및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창업준비 공간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창업지원정책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원유형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의 직접지원 여부에 따라 창업 직접지원과 창업 간접지원으로 분류하고, 창업 직접지원은 창업자금, 창업 간접지원은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지원사업에서 예비 및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선정하였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사업화(5,130.7억원) 예산의 20%(1,0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학 및 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창업허브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정경희, 2018; 김선우 외, 2015).

사업내용은 크게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과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및 창업공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1 창업 직접지원(창업자금)

창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자금을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크게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자금으로 구분된다.

지원자금은 (예비)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며, 출연자금은 기술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과제 완료 후 출연자금의 10% 정도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자금이다.

융자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성격으로 대출형태이며, 투자자금은 주로 모태펀드출자나 엔젤투자 형태로 투자 및 연계 등의 자금을 의미한다(김창봉·이승현, 2017).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기업의 경영성수에 있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단기적 창업성과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창업자금지원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공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창봉·이승현, 2017; 전봉준, 2012).

2.1.2. 창업 간접지원(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

창업 간접지원원은 정부가 자원이 부족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인프라(공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준비된 창업가 양성을 위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의지 및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창업 전반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며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이용희 외, 2016; Kierulff, 2005).

창업멘토링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조력자가 멘토로서 창업기업의 창업과정 전반을 지도 및 조언하여 창업자 실력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김영진·정상철, 2017). 멘토링은 멘토의 경력개발과 창업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도 창업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 성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Allen & Eby, 2003).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중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멘토의 역할과 역할 모델 기능은 초기 생존을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방해민·전인오, 2015).

정부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정보 제공, 연구 기자재 활용 지원 등과 같이 창업과정에 필요한 총체적인 창업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장기간 보육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간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입주하여 집중 지원을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창업 간접지원원은 창업기업의 지속 운영 및 성장에 효과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성공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입증되었다(이승현, 2014; 김순태, 2013).

2.2 창업기업 특성

2.2.1 창업기업의 유형 및 업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의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인 초기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의 3호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까지의 기업을 의미한다.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은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되며(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8), 기술창업은 기술을 지식의 범위로 확대하여 기술과 지

식 등 유기적 자산을 활용한 기업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정경희, 2018). 이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기술창업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인 기술창업은 크게 제조업과 지식서비스로 분류되며, 제조업은 사업자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와 다른 제조업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모두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박대한 외, 2019).

지식서비스업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고급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2.2.2 창업성장단계

기업성장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장단계 구분을 위한 기준이 다소 상이 할 뿐, 각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전략 및 경영 활동이 존재하며, 단계별 중요한 성공 요인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

Scott & Bruce(1987)는 창업기, 생존기, 성장기, 확장기, 성숙기 5단계로 분류하였고, Dodge et. al.(1994)는 기업의 성장초기단계와 성장후기단계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분류는 창업, 성장, 성숙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임성준·김장권, 2011; 장수덕, 2007; Chen, 2004).

본 연구에서는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Ruhnka & Young(1987)가 제시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참조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단계로 예비창업단계를 포함하고, 확장 및 회수 단계는 제외하여 예비창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하였다.

예비창업단계는 창업 전 준비단계로 창업자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창업형태를 갖추기 이전으로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 단계로 창업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시된다. 창업단계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며, 조직 및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경중수·이보형, 2010; Miller & Friesen, 1982).

성장단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본격화되고, 매출의 발생 및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마케팅 계획이 핵심요인이며, 기업 성장에 있어 인재확보와 제품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김홍철·이선규, 2014; 구자원·이윤철, 2008).

2.3 창업성과

창업기업의 성과는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창업성과는 기업의 최종결과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이며, 기업평가에 기준이 된다(손

은호·김경환, 2007).

창업성과는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된다. 재무적 성과 측정은 매출액, 투자수익률, 수익성, 시장점유율 등이 활용되며, 비재무적 성과는 고용율, 창업만족도 등으로 측정한다(Hanks & Chandler, 1994; Dess & Robinson, 1984).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거나, 이는 단기적이며 과거지향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성과를 평가한다(이길원·박현숙, 2016; 김만기, 2010). 또한, 창업성과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객관적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조직 유효성, 성과 만족도 등의 주관적 지표 측정을 활용한 방법도 있다(Tsai, 1991; Stuart & Abetti, 1987). Dess & Robinson(1984)은 주관적 지표 활용방법이 기업의 실질적 측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성과를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 비재무적 성과로는 고용창출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김창봉·이승현, 2017; 김호정, 2012). 이는 단기적이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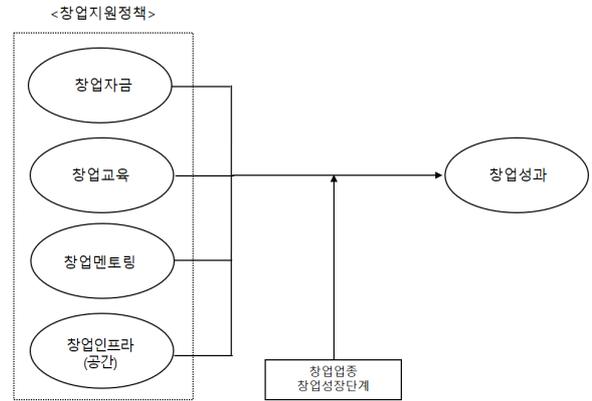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적 성과로 매출과 비재무적 성과로 고용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창업성과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창업기업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창업성과로 매출과 고용을 설정하였다.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창업업종(제조, 지식서비스) 및 창업성장단계(예비, 창업, 성장)를 조절변수로 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1.1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정부는 창업지원정책의 예산을 매년 증액 배정하여 창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분야별 성과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창업지원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안승구, 2017).

김창봉·이승현(2017)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공률 제고에 있어 창업자금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김순태(2013)는 창업자금 지원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교육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승현(2014)은 정부의 창업자금은 기업의 단기적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컨설팅이나 창업교육 등의 지원 정책이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창업지원정책의 변수로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안태욱 외(2019)는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적 역량과 창의성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규모와 정책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지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창업자금 지원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매출,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창업교육 지원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매출,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창업멘토링 지원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매출,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창업인프라(공간) 지원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매출,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업종 및 성장단계의 조절효과

조직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필요 역량을 발견하여 성공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Kazanjian & Drazin,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지원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안승구, 2017). 김창봉·이승현(2017)은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 기회발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회활용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며,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별적 관계가 확인되었다(최종열, 2010; 서창수, 2002). 제조와 지식서비스 업종은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전달 과정이 서로 상이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업종별 창업성파의 영향요인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5: 창업지원정책(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과 창업성파(매출, 고용)의 관계에서 창업업종은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 H6: 창업지원정책(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과 창업성파(매출, 고용)의 관계에서 창업성장단계는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금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멘토링 지원, 창업인프라(공간)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자금 지원은 실질적 자금규모를 조사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은 실제 참여 정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인프라(공간)은 공간 미지원(외부입주)과 공간지원(내부입주)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창업성파는 매출과 고용으로 조사하였다.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창업자금	(예비)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자금 규모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의 참여 정도
창업멘토링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 매칭(1:1) 멘토링의 참여 정도
창업인프라(공간)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코워킹스페이스 및 독립실)의 활용 여부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 / 공간지원 : 내부입주)
창업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성장단계	예비단계는 창업준비 예비창업자 창업단계는 창업 후 1년 미만의 기업 성장단계는 창업 후 2-3년 이내의 기업
창업성파	매출, 고용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업력 3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지원사업에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의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주관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자료 취합 기간은 2019년 9월~10월 2달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297개의 회수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연구대상 창업기업은 297개 기업으로 2016년 76개(25.7%), 2017년 80개(26.9%), 2018년 141개(47.5%)로 구성되었다. 대표의 성별은 남자 257명(86.5%), 여자 40명(13.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4배 이상 많이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97개(66.3%), 지식서비스업 100개(33.7%)이며, 창업유무는 예비창업기업 75개(25.3%), 창업기업 222개(74.7%)로 구성되었다. 성장단계별 예비단계는 71명(23.9%), 창업단계는 143명(48.1%), 성장단계는 83명(27.9%)으로 창업단계의 창업기업이 가장 많이 구성되었다. 창업기업 특성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별 창업기업 특성별 분포

특성	구분	전체(비율)
년도	2016년	76(25.6%)
	2017년	80(26.9%)
	2018년	141(47.5%)
성별	남자	257(86.5%)
	여자	40(13.5%)
업종	제조	197(66.3%)
	일반	100(33.7%)
창업유무	예비	75(25.3%)
	창업	222(74.7%)
성장단계	예비	71(23.9%)
	창업	143(48.1%)
	성장	83(27.9%)
전체		297(100.0%)

4.2 가설검증 결과

4.2.1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파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정책(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에 따른 창업성파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창업기업의 창업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자금지원은 평균 44,547(천원), 창업교육지원은 평균 3.59, 창업멘토링지원은 평균 3.12로 나타났다. 창업인프라지원은 공간지원 여부에 따라 구

분하여,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외부입주는 221개(74.4%), 공간 지원을 받은 내부입주는 76개(25.6%)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창업기업의 창업지원정책

지원정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업자금지원(천원)	17,150	80,000	44547.64	11975.76
창업교육지원(5점)	1	5	3.59	1.20
창업멘토링지원(5점)	1	5	3.12	1.35

지원정책	구분	빈도	비율(%)
창업인프라지원	공간 미지원 (외부입주)	221	74.4
	공간지원 (내부입주)	76	25.6
전체		297	100.0

창업지원정책에 따른 창업성과(매출, 고용)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매출은 창업자금지원이 많아질수록 유의수준 10% 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04, p<.10$),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창업멘토링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3, p<.05$). 창업인프라(공간)는 미지원과 지원 모두 매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미지원 $\beta=.167, p<.05$, 지원 $\beta=.197, p<.05$). 고용은 창업멘토링($\beta=.182, p<.05$)과 창업인프라(공간) 미지원($\beta=.195, p<.05$)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4> 창업지원정책에 따른 창업성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허용 오차	VIF
매출	(상수)	-1.454	6.300		-231	.818		
	창업자금	.970	.584	.104	1.661†	.098	.977	1.023
	창업교육	.169	.156	.074	1.085	.279	.826	1.211
	창업멘토링	.343	.135	.173	2.542*	.012	.829	1.206
	창업인프라(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	1.078	.504	.167	2.139*	.033	.630	1.586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 내부입주)	1.786	.722	.192	2.474*	.014	.637	1.569
	통계량	R=.286, R ² =.082, Adj. R ² =.062 F=4.239***, p=.000, DW=1.153						
	고용	(상수)	-8.254	11.627		-.710	.478	
창업자금	.894	1.078	.047	.830	.407	.975	1.025	
창업교육	-.418	.268	-.096	-1.558	.120	.844	1.184	
창업멘토링	.707	.238	.182	2.967**	.003	.846	1.182	
창업인프라(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	2.352	.808	.195	2.912**	.004	.712	1.405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 내부입주)	.399	1.268	.021	.315	.753	.732	1.366	
통계량	R=.279, R ² =.078, Adj. R ² =.062 F=4.880***, p=.000, DW=1.792							

† p<.10 *p<.05 **p<.01

4.2.2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에 있어 창업업종 및 성장단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업종(제조, 지식서비스)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매출은 업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형3에서 제시된 창업지원정책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과 창업인프라(공간) 미지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다.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beta=.256, p<.05$)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제조업은 창업멘토링($\beta=.240, p<.01$)과 창업인프라 미지원과 지원 모두 매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지원 $\beta=.336, p<.001$, 지원 $\beta=.268, p<.01$).

고용의 경우 창업유형은 다음 <표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창업지원정책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매출)의 관계에 대한 업종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454		-.231	-1.786		-.282	-2.730		-.252
창업자금(A)	.970	.104	1.661	.989	.106	1.689	1.062	.114	1.052
창업교육(B)	.169	.074	1.085	.180	.079	1.143	.740	.325	2.781**
창업멘토링(C)	.343	.173	2.542*	.323	.163	2.310*	.422	.213	1.892
공간 미지원: 외부입주(D)	1.078	.167	2.139*	1.096	.170	2.167*	-1.329	-.206	-1.342
공간지원: 내부입주(E)	1.786	.192	2.474*	1.813	.195	2.502*	-.125	-.013	-.099
업종(Y)				.199	.035	.539	-2.707	-.475	-2.501*
A*Y							-.018	-.002	-.015
B*Y							-.863	-.321	-2.612*
C*Y							.021	.008	.072
D*Y							3.271	.614	2.862**
E*Y							2.500	.211	1.617
R	.286			.288			.394		
F ² (Adj. F ²)	.082(.062)			.083(.060)			.147(.107)		
F(p)	4.239(.001)			3.570(.002)			3.642(.000)		
VIF	1.023-1.586			1.027-1.593			2.533-9.823		
DW	1.295								

*p<.05 **p<.01 ***p<.001

<표 6> 업종별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매출)의 관계

	지식서비스			제조		
	b	β	t	b	β	t
(상수)	-2.730		-2.09	-2.215		-.331
창업자금(A)	1.062	.097	.871	1.044	.125	1.684
창업교육(B)	.740	.256	2.301*	-.123	-.062	-.704
창업멘토링(C)	.422	.179	1.566	.443	.240	2.736**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D)	-1.329	-.174	-1.111	1.942	.336	3.818***
공간 지원 : 내부입주(E)	-.125	-.013	-.082	2.374	.268	3.019**
R	.378			.383		
R ² (Adj. R ²)	.143(.083)			.147 (.120)		
F(p)	2.399(.000)			5.496(.000)		
VIF	1.033-2.058			1.027-1.477		
DW	1.628			1.217		

*p<.05 **p<.01 ***p<.001

<표 7>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고용인원)의 관계에 대한 업종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8.254		-.710	-8.299		-.713	-7.327		-.378
창업자금(A)	.894	.047	.830	.879	.047	.814	.817	.043	.446
창업교육(B)	-.418	-.096	-1.558	-.406	-.093	-1.508	-.040	-.009	-.087
창업멘토링(C)	.707	.182	2.967	.681	.175	2.792	.299	.077	.752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D)	2.352	.195	2.912	2.382	.198	2.938	1.620	.134	1.056
공간 지원 : 내부입주(E)	.399	.021	.315	.447	.023	.351	.496	.026	.230
업종(Y)				.334	.030	.520	-.423	-.038	-.254
A*Y							.282	.012	.124
B*Y							-.645	-.122	-1.135
C*Y							.674	.138	1.324
D*Y							1.130	.108	.624
E*Y							-.020	-.001	-.007
R	.279			.281			.300		
R ² (Adj. R ²)	.078(.062)			.079(.060)			.090(.055)		
F(p)	4.880(.000)			4.101(.001)			2.550(.004)		
VIF	1.025-1.405			1.026-1.413			2.918-9.253		
DW	1.815								

*p<.05 **p<.01 ***p<.001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매출)의 관계에서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매출은 성장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모형 3에서 제시된 창업지원정책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장단계뿐만 아니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예비단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beta=.255, p<.05$)이 더욱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는 창업자금이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고용에 대한 성장단계의 조절효과는 다음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나, 창업지원정책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장단계별 창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1>과 같이,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장단계와 고용의 관계는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표 8>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매출)의 관계에 대한 성장단계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454		-.231	-2.243		-.369	8.830		.460
창업자금(A)	.970	.104	1.661	.858	.092	1.524	-.354	-.038	-.201
창업교육(B)	.169	.074	1.085	.235	.103	1.559	1.050	.461	2.227*
창업멘토링(C)	.343	.173	2.542*	.324	.164	2.491*	-.132	-.067	-.302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D)	1.078	.167	2.139*	.586	.091	1.175	.669	.104	.532
공간 지원 : 내부입주(E)	1.786	.192	2.474*	1.216	.131	1.718	5.912	.637	2.791**
성장단계(Z)				1.043	.272	4.382***	1.254	.327	2.164*
A*Z							.589	.147	.771
B*Z							-.389	-.380	-1.824
C*Z							.209	.234	1.057
D*Z							-.111	-.045	-.171
E*Z							-2.144	-.551	-2.222*
R	.286			.388			.435		
R ² (Adj. R ²)	.082 (.062)			.151 (.129)			.189 (.150)		
F(p)	4.239(.000)			7.002(.000)			4.913(.000)		
VIF	1.023-1.586			1.025-1.671			2.258-9.644		
DW									

*p<.05 **p<.01 ***p<.001

<표 9>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매출)의 관계

	예비			창업			성장		
	b	β	t	b	β	t	b	β	t
(상수)	8.405		.524	-1.574		-.153	-3.463		-.469
창업자금(A)	-.073	-.008	-.050	1.036	.097	1.084	1.351	.217	1.946*
창업교육(B)	.716	.334	1.924	.203	.081	.847	-.104	-.060	-.497
창업멘토링(C)	-.220	-.106	-.622	.503	.255	2.630*	.313	.202	1.659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D)	.512	.091	.562	-.351	-.047	-.384	.930	.187	1.138
공간 지원 : 내부입주(E)	3.438	.316	1.954	1.105	.109	.907	-.118	-.019	-.117
R	.406			.332			.379		
R ² (Adj. R ²)	.165(.052)			.110(.072)			.143(.085)		
F(p)	1.463(.225)			2.852(.018)			2.477(.039)		
VIF	1.093-1.339			1.039-1.924			1.075-2.341		
DW	1.753			1.626			1.415		

* p<.10 **p<.05 ***p<.01

<표 10>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고용)의 관계에 대한 성장단계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8.254		-.710	-9.611		-.841	6.366		.178
창업자금(A)	.894	.047	.830	.791	.042	.746	-.536	-.028	-.162
창업교육(B)	-.418	-.096	-1.558	-.330	-.076	-1.246	.131	.030	.169
창업멘토링(C)	.707	.182	2.967*	.648	.167	2.763**	-.048	-.012	-.064
공간 미지원 : 외부입주(D)	2.352	.195	2.912*	1.576	.131	1.908	-.530	-.044	-.254
공간 지원 : 내부입주(E)	.399	.021	.315	-.498	-.026	-.391	.402	.021	.106
성장단계(Z)				1.455	.198	3.383**	.583	.080	.581
A*Z							.496	.060	.341
B*Z							-.228	-.110	-.613
C*Z							.325	.180	.928
D*Z							1.222	.255	1.069
E*Z							-.127	-.015	-.072
R	.279			.336			.351		
R ² (Adj. R ²)	.078(.062)			.113(.095)			.123(.089)		
F(p)	4.800(.000)			6.122(.000)			3.624(.000)		
VIF	1.025-1.405			1.026-1.523			2.021-9.674		
DW	1.844								

*p<.05 **p<.01 ***p<.001

<표 11>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고용인원)의 관계

	예비			창업			성장		
	b	β	t	b	β	t	b	β	t
(상수)	6.207		.702	-8.762		-.441	-7.375		-.324
LN자금규모(A)	-.525	-.080	-.647	.999	.046	.541	.826	.044	.384
교육참여도(B)	.071	.054	.415	-.564	-.118	-1.302	-.330	-.062	-.512
멘토링참여도(C)	.229	.170	1.314	.672	.172	1.879	.861	.182	1.501
공간_외주(D)	.759	.219	1.744	2.027	.140	1.311	3.059	.201	1.225
공간_단독(E)	-.419	-.057	-.455	.865	.041	.389	-.407	-.021	-.131
R	.329			.224			.312		
R ² (Adj. R ²)	.108(.038)			.050(.016)			.097(.039)		
F(p)	1.531(.193)			1.454(.209)			1.659(.155)		
VIF	1.074-1.213			1.034-1.647			1.146-2.306		
DW	2.072			2.029			1.758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매출, 고용)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창업업종(지식서비스, 제조) 및 창업성장단계별(예비, 창업, 성장)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 확인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규모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04, p<.10$), 창업멘토링 지원이 많아질수록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beta=.173, p<.05$). 또한, 창업인프라의 경우 미지원과 지원 모두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미지원:외부입주 $\beta=.167, p<.05$, 지원:내부입주 $\beta=.197, p<.05$).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의 매출에 있어 창업자금 지원은 단기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창봉-이승현, 2017; 전봉준, 2012), 경험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멘토링 지원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 창업인프라 지원의 경우, 입주공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공간은 창업성과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시설 및 공간지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지원보다 종합적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안승구, 2017).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교육이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초기 창업기업의 단기적 성과로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박남규 외, 2015; 이승현, 2014).

안승구(2017) 연구와 같이, 정책 유형별 효과성 측면에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이 낮게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매출과 달리 고용은 창업멘토링($\beta=.182, p<.05$)과 창업인프라의 공간지원 없이 외부입주($\beta=.195, p<.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창업멘토링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영향을 주는 창업멘토링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반면 공간지원의 경우 창업성과(고용)에 있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창업업종과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집단간 영향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 참여도와 창업인프라(공간) 미지원(외부입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매출 관계에서는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 지원($\beta=.256, p<.05$)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제조는 창업멘토링 지원($\beta=.240, p<.01$)과 입주공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을 지원받지 않는 외부입주($\beta=.336, p<.001$)가 공간지원을 받은 내부입주($\beta=.268, p<.01$)의 경우보다 더욱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특성상 창업인프라로 지원되는 공간의 한계에 따라 외부입주에 따른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별 고용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성과에 있어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다면,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지원이 중요하고, 제조는 창업멘토링지원과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성장단계별 매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beta=.255, p<.05$)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는 창업자금지원이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시작하는 단계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 시스템의 부재와 경험 부족으로 창업멘토링 지원이 절실하며, 성장단계의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자금지원의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단계와 고용 관계의 미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담당자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창업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창업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단순 물리적 공간지원은 실효성이 저조하여 종합적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있어 투입대비 성과창출을 위한 차별

화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창업기업 특성에 따라 유형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정책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유형별 실효성 검증의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으로만 표본을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창업성과 측정에 있어 투자성과 지표 확보의 어려움 및 투자성과 저조로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성과에 대한 효과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객관적인 창업성과를 효과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장기적 관점의 시계열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책의 중장기 효과성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초기 창업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확보하여 다차원적인 창업성과를 반영한 창업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경중수이보형(201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업성장단계별 차별화 방안. *중소기업연구*, 32(4), 57-79.
- 구자원이윤철(2008). 성장단계별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6), 2819-2856.
- 김만기(2010). *건설기업의 경영성과 측정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경훈(2017).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 점검*. 한국무역협회.
- 김선우·김영환·이정우·김석현·박기운·오지선·손하늬·김동현(2015). *창업선도대학 성과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순태(2013).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 정책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영진·정상철(2017). 창업가정신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멘토링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1(1), 119-136.
-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인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 김호정(2012). *창업보육 특성과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김홍철이선규(2014).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1-20.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대한성창수정경희(2019). 창업기업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59-71.
- 방혜민·전인오(2015). 멘토의 역량과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 초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444-454.
- 서창수(2002). *한국벤처기업 경영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재와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6(8).

- 손은호·김경환(2007). 핵심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텔산업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6(5), 93-111.
- 안승구(2017).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 창업자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 양현봉·한창용·김진수(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8-441.
- 이길원·박현숙(2015). 창업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속성이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69-82.
- 이승현(2014).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용희·홍광표·정유섭·박수홍(2016). 벤처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전략 개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1), 133-157.
- 이희경(2017).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성준·김장권(2011).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지원전략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390-400.
- 장수덕(200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관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0(1), 33-54.
- 정경희(2018). *창업기업 선정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정경희·최대수(2018). 균형성과표(BSC) 기반 창업기업 선정평가 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3(6), 49-62.
- 전봉준(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8).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최종열(2010). 기술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보육센터 기업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13(4), 87-108.
- Ahn, S. K.(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olicy Effectiveness*. Advancing Science Korea KISTEP.
- Ahn, T. U., Han, D. H., & Kang, T. W.(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4(1), 73-83.
- Allen, T. D., & Eby, L. T.(2003). Relationship Effectiveness for Mentors: Factors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Quality. *Journal of Management*, 29, 469-486.
- Band, H. M., & Jeon, I. O.(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oring Skills and Mentoring Functions on Initial Start-up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444-454.
- Chang, S. D.(2007). Risk Management of High-Tech Ventures Across the Growth Stages: Age-Dependent Risk, Resource-Based Buffers and Surviv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0(1), 33-54.
- Chen, H. M.(2004). Performance appraisal across organizational life cycles. *Human Systems Management*, IOS Press.
- Choi, J. Y.(2010). Characteristics of Network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The Korean Venture Management Review*, 13(4), 87-108.
- Dess, G. G., & Robinson Jr, R. B.(1984).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Objective Measures: the Case of the Privately-Held Firm and Conglomerate Business Uni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3), 265-273
- Dodge, H. R., Fullerton, S., & Robbins, J. E.(1994). Stage of the organizational life cycle and competition as mediators of problem perception for small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2), 121-134.
- Gartner, W. B., & Vesper, K. H.(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 GEM(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lobal Reports 2016/2017*.
- Gu, J. W., & Lee, Y. C.(2008). A Study on the Selecting, Learning, Coordinating Mechanism Factors in the Growth Stages: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High-tech Venture Compani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819-2856.
- Hanks, S., & Chandler, G. N.(1994). *The impact of new venture growth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ntier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 Jeon, B. J.(2012). *Analysis on effect & influence of SBC's business startup funding program*.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Jung, K. H.(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model for selecting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Jung, K. H., & Choi, D. S.(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Index for Selecting Start-ups on Balanced Scorecar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49-62.
- Kazanjian, R. K., & Drazin, R.(1990). A Stage-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137-150.
- Kierulff, H. E.(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oland: Findings from the fiel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15(1), 93-98.
- Kim, C. B., & Lee, S. H.(2017). A Study on Influence of Entrepreneur Behavior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41-54.
- Kim, H. C., & Lee, S. K.(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by growth stages: Focusing on the Case Stud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1-20.
- Kim, H. J.(2012). *A Study on the Business Incubator*

- Characteristics, Supporting Services and Firm'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Kim, K. H.(2017). *Check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s Corporate Ecosystem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KITA.
- Kim, M. G.(2010). *A Stud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Construction Firms*.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lm, S. T.(2013).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Micro-enterprise on Business Strategy and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Kim, S. W., Kim, Y. H., Lee, J. W., Kim, S. H., Park, K. Y., Oh, J. S., Son, H. N., & Kim, D. H.(2015). *Performance Analysis Research of Leading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Y. J., & Jung, S. C.(2017). An Empirical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Corporate Mentoring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Satisfac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1), 119-136.
- Kyung, J. S., & Lee, B. H.(2010). An Approach to Differentiate Business Support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Sml-Medium Enterprises' Competency by Growth Stag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4), 57-79.
- Lee, H. K.(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 enterprise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Lee, K. O., & Park, H. S.(2015). The Influence of Small Firm CEOs Entrepreneurial Attributes in the start-up phase on DFCA and Business Performance: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DFC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69-82.
- Lee, S. H.(2014).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Business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Lee, Y. H., Hong, K. P., Jeong, Y. S., & Park, S. H.(2016). Develop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rategy for venture's successful startup.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8(1), 133-157.
- Limb, S. J., & Kim, C. K.(2011). Effectiveness of Business Incubators' Tenants Suppor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1), 390-400.
- Miller, D., & Friesen, P. H.(1982). Innovation in Conservative and Entrepreneurial Firms: Two Models of Strategic Momentu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 1-2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9). *Integrated Announcemen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 in 2019*. Press release.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8). *Survey of start-up companies in 2017*.
- Park, N. G.,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0(6), 89-98.
- Park, D. H., Sung, C. S., & Jung, K. H.(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of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59-71.
- Ruhnka, J. C., & Young, J. E.(1987). A venture capital model of the development process for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87, 2(2), 167-184.
- Scott, M., & Bruce, R.(1987). Five stages of growth in small business. *Long Large Planning*, 20(3), 45-52.
- Seo, C. S.(2002). *A Study on Dynamic Management-Patterns of Korean Venture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Shin, D. P., Bae, Y. G., & Son, S. H.(2018). *Current and Implications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 Support Policy*.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8(8).
- Son, E. H., & Kim, K. H.(2007). Effects of the Alignment between Core Competence and Competitive Strateg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in the Hotel Industry.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16(5), 93-111.
- Stuart, R. W.,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 : Toward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 Tsai, W.(1991).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 Yang, H. B., Han, C. Y., & Kim, J. S.(2018).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Startup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ISSUE PAPER 2018-441.

Effectiveness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olicy of Early Start-ups: Moderating Effect of the Industry and Growth Stage of the Start-ups

Jung, kyung-hee*

Abstract

This study was proceed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start-up support policy as an element that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early start-ups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tart-up support policy,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future policies according to the study. To accomplish this the influence of the start-up support policy on the early start-ups was analyzed,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industry and growth stage of the start-up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s, were identified. The research subjects collected real data of 297 start-ups of the past three years that were selected for the Initial Start-Up Package project, and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influence between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t-up support policy and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sales had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rt-up fund, start-up mentoring, and start-up infrastructure(space), while start-up education failed to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sales. In terms of employment, start-up mentoring was the only field that showed a significant influential relationship. Second,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s industry and growth stage, the industr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but the interactive effect was seen in start-up education. To be more specific in terms of the sales relationship of each industry, knowledge services turned out to be helpful in improving sales, while manufacturing turned out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sales regardless of being supported with start-up mentoring and start-up infrastructure (space). The sales relationship regarding the start-up growth stage was identifi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liminary st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providing start-up mentoring and start-up funding were effective for start-up stage and growing stag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did not perform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rt-up growth stag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the start-up support policy for early start-ups, identifies the need in differentiated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in which future policies should be made towards.

Key words: Early Start-ups,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Fund, Start-up Mentoring, Start-up Infrastructure, Start-ups Performance, Start-up Industry, Start-ups growth stage

* First Author, Entrepreneurship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emiso@korea.ac.kr